



주간 통일정세

2013-39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평양 문수물놀이장 5일 만에 또 시찰(9/2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평양 문수물놀이장 건설장을 또다시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문수물놀이장 전경을 바라보면서 "며칠 전에 찾아왔을 때보다 몰라보게 변모됐다"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함.

- **北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설립 확인...역할에 관심(9/23,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에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조직으로 보이는 '국가경제개발위원회'라는 새 기구가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함.
 - 노동신문은 23일 함경북도 나진과 러시아 극동 도시 하산을 잇는 철도 개통식을 전한 기사에서 북측 참석자로 리철석을 거명하고 그의 직책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소개함.

- **北 김정은, 평양 구강병원 건설현장 시찰(9/2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문수지구에 노동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에 맞춰 완공될 예정인 평양 구강병원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병원 내 치료실, 약국, 상점, 어린이놀이장 등을 둘러보고 "이번에 병원에 놓아줄 구강종합치료기 30대를 당에서 마련했다"며 "계획된 30대를 설치해주면 하루에 300여명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北 김정은, '5월1일경기장' 개보수 지시(9/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평양 능라도의 5월1일경기장에서 관람석과 육상주로, 축구장 등의 여러 시설을 돌아보고 개건보수의 과업을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5월1일경기장을 세상에 자랑할만한 종합경기장으로 새롭게 변모시키자"며 "우리나라 체육시설의 상징으로, 문명국의 체모에 어울리는 경기장으로 훌륭히 개건보수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라고 말함.



- **北 김정은, 완공 앞둔 김일성대 주택단지 시찰(9/2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완공을 앞둔 김일성종합대 교육자 살림집(주택) 건설현장을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건설현장의 시공 상황을 점검하고 공동살림방, 부엌, 서재, 부부방, 실내휴식터 등을 둘러봤으며 모든 세대에 액정TV를 보내주겠다고 말했다고 통신이 전함.

■ **김정은동향**

- 9/23, 김정은 黨 제1비서, 문수물놀이장 건설장과 완공단계에 이른 미림승마구락부 건설장 현지지도(9.23, 중통·중방·평방)
 - 최룡해(총정치국장)·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박태성·마원춘(黨 중앙위 부부장) 동행
- 9/24,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단계 구강병원 건설장 현지지도 및 '구강병원 → 류경구강병원'으로 작명(9.24, 중통·중방·평방)
 - 한광상(黨 부장), 박태성·마원춘·허환철(黨 부부장) 동행
- 9/24, 김정은 黨 제1비서, 5월1일경기장을 돌아보고 개건 보수과업 제시(9.24, 중통)
 - 최룡해(軍총정치국장),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로두철(내각부총리), 리영수(黨 부장), 박태성·마원춘(黨 부부장들), 리종무(체육상) 등 동행
- 9/29,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을 앞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건설장 현지지도(9.29, 중통·중방)
 - 최태복(黨중앙위 비서), 마원춘(黨중앙위 부부장), 태형철(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김태히(김일성종합대학 黨위 책임비서)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박봉주(내각총리), 9.24 제9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장 참관 (9.24, 중통·중방)
- 김영남, 9.24 세계교회협의회 대표단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 (9.24, 중통·중방)
- 평양학생소년궁전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9.29 리영수(黨 부장)·전용남(청년동맹 위원장)·김진하(평양시黨 비서) 등 참가下 진행 (9.29, 중방)

나. 경제

- **北 쌀값 추석 대목에도 안정세... "9·9절 배급 때문"(9/23, 연합뉴스; 데일리NK)**
 - 23일 대북매체 데일리NK가 집계한 '북한 장미당 동향' 자료에 따르면 추석 이틀 전인 이달 17일 기준으로 평양과 신의주의 쌀값은 지난달 초와 비교해 1kg당 각각 600원, 450원 정도 내린 4천800원, 5천100원으



- **북한에도 건강식품 생산 '활기'(9/23,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3일 평양에서 제9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 개막식이 열린 소식을 전하며 "의학과학원 약학연구소에서는 이번 전람회에 효능 높은 천연건강식품인 생물칼시움영양알을 비롯해 여러 가지 제품을 출품했다"고 밝힘.
 - 약학연구소의 김길훈 공장장은 '생물칼시움영양알'에 대해 어린이들의 키를 빨리 크게 하고 성인들의 골다공증과 관절염 치료에 특효가 있어 사람들 속에서 반응이 매우 좋다고 소개함.

- **北 "부르주아 사상문화 침투 배격해야"(9/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배격해야 한다'는 글에서 "제국주의자들은 청소년들 속에 부르주아 사상문화를 들이밀어 방탕한 생활을 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의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위반하고 자유를 부르짖으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불량배로 만들려 한다"며 외부로부터의 사상문화 침투를 막고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12년제 의무교육 법제화 1년..."시행 준비 박차"(9/25,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25일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 제정 1주년을 맞아 새 교육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준비사업의 성과를 소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5일 보도함.
 - 내각 교육위원회 보통교육성의 리관호 제1부상과 김성일 국장은 이날 조선중앙방송 인터뷰에서 새 교육제도에 맞게 교육과정별 목표, 학과목, 과목별 교수요강 등을 정했다고 밝힘.

- **北 통신 "함북 회령서 발해 시기 고분군 발굴"(9/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함경북도 회령시 궁심동 일대에서 발해 시기의 무덤떼(고분군)를 새로 발굴했다고 25일 보도함.
 - 통신은 이번 발굴을 맡은 사회과학원 발굴팀이 무덤의 축조 상태와 유물들로 미뤄볼 때 발해 시기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궁심(동) 무덤떼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함.

- **北 체육단체장 잇단 물갈이...후원 강화 움직임(?) (9/29,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는 보통 내각 등 중앙기관이 축구, 농구 등 종목별로 선수들을 후원하는데 북한이 올해 스포츠 보도를 늘리면서 체육단체장의 교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달 26일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윤원철이 귀국했다고 전하며 평양역에 환영 나온 간부 가운데 리룡남 무역상을 조선레슬링협회 위원장으로 소개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제27차 평양 국제탁구초청경기대회(9.23-27, 인도네시아·중국·북한) 개막식, 9.23 태권도전당에서 진행(9.23, 중통·중방)
- 윤원철·서심향(2013년 세계 레슬링선수권대회, 南 55kg급 1위·女 51kg급 3위), 9.26 귀환 및 최태복(黨 비서)·리룡남(무역상)·오금철(軍 상장) 등 평양역 환영(9.26, 중통·중방)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 "나진-하산 철도는 북러관계 발전 이정표"(9/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을 잇는 철도 구간의 재개통이 "나진-하산 철도 개건 구간의 개통은 조선과 러시아 사이의 친선협조관계 발전을 추동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문화적 연계를 활성화하며 지역 나라들의 공동번영을 이룩해나가는 데서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함.
- 통신은 철도의 개통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대규모 협조계획이 현실로 됐다"며 "조로(북러) 인민들과 지역의 공동발전과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협조의 본보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함.

● 北 나선서 '국제자전거관광축전' 열려(9/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3일 국경도시인 함경북도 나선시에서 '2013년 노디크웨이즈와 싸 중국-조선 국제자전거관광축전'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함.
- 축전에는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핀란드, 영국, 스위스의 자전거애호가들이 참가해 자전거로 도로 50km 정도를 달렸고 해안공원 앞에서 행사를 마무리하는 모임을 했으며 전동철 나선시 인민위원회 국장은 모임에서 "자주, 친선, 평화의 이념으로 우호적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함.

● 北 평양 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개막(9/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최대 무역박람회인 제9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가 23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전함.
- 박웅식 조선국제전람회 사장과 서길복 무역성 부상은 연설에서 "전람회가 나라 사이의 친선과 단결을 도모하고 폭넓고도 다방면적인 경제무역 거래와 상품소개, 과학기술교류 등을 더욱 활발히 벌이는데 좋은 계기"라고 강조함.
-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전람회에는 13개국의 무역회사들이 참가해 CNC공작기계와 전기·전자 및 화학, 경공업 제품, 식료품, 의료기구,



의약품 등이 전시됨.

- **북한대표 내달 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 신청(9/25, 연합뉴스)**
 - 제28차 유엔총회의 각국 대표 기조연설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시작된 가운데 북한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공식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함.
 - 우리 측 외교 소식통은 이날 "북한 대표가 실제로 유엔총회장에 나와 기조연설을 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 "그러나 유엔본부에 공식적으로 기조연설을 신청한 것으로 미뤄 실제 연설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北 작년 '정치적 안정도' 개선(9/25, 연합뉴스)**
 - 25일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세계 거버넌스 지수'(WGI)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정치적 안정성 및 폭력의 부재(PV) 지수는 -0.10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2011년(-0.32)보다 올라 북한의 정치적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함.
 - PV 지수는 정부가 불법 수단에 의해 전복되지 않고 테러를 포함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며 북한의 PV 지수는 조사 대상 200여개 국 가운데 중위권 수준임.
- **러시아 회사, 상반기 北에 코크스탄 450만弗 수출(9/25, 이즈베스티야) 도착**
 - 러시아 석탄회사 라스파드스카야가 올 상반기에 450만 달러(약 48억4천만원) 어치의 코크스탄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현지 신문 '이즈베스티야' 인터넷판이 25일 보도함.
 - 라스파드스카야의 대북 수출액은 이 회사의 올 상반기 전체 수출액의 4%를 차지하는 규모로 북한이 중국, 우크라이나, 한국, 일본에 이어 이 회사의 다섯번째 수출 시장이 됐으며 올해 모두 3천200만 달러 어치의 코크스탄을 북한에 수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北, 주브라질 대사에 김태중 임명(9/25,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5일 북한의 김태중(66) 전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이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브라질 주재 대사에 임명됐다고 보도함.
- **北-몽골, 3년 만에 경제·무역·과학기술협의회(9/25,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몽골이 24~25일 평양 민수대의사당에서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의회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전함.
 - 회의에는 리룡남 무역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경제무역대표단과 칼트마 바툴가 농업공업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 경제무역대표단이 참석했고 양국은 3년 전 체결한 제8차 회의 의정서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제9차 회의 의정서에 서명함.



- **러, 내년 北 나진항 통해 석탄 120만t 수출(9/25, 모스크바 타임스)**
 - '모스크바 타임스'는 25일 러시아 하산과 북한의 나진항을 연결하는 철도 개보수 공사를 담당했던 러시아-북한 합작회사 '나선 콘트렌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가 내년에 북한 나진항을 통해 석탄 120만t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 이 관계자는 나진항의 적재능력이 400만t이지만 부두 시설과 새로 연결한 나진-하산 철도를 시험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경로를 통해 120만t 정도의 석탄을 우선 수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올 상반기 캐나다 정착 탈북난민 급감(9/27, 자유아시아방송(RFA))**
 -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심사 절차를 강화하면서 올 상반기에 캐나다에 난민으로 수용된 탈북자가 21명에 그쳐 작년 동기 110명에 비해 급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함.
 - 캐나다에 난민으로 수용된 탈북자가 대폭 감소한 것은 캐나다 정부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의 난민 인정을 막고자 작년 12월 심사 절차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RFA는 설명함.

- **파나마, 北 청천강호에 벌금 100만 달러 부과(9/27, 연합뉴스)**
 - 파나마 운하 관리국은 쿠바에서 선적한 미신고 무기류를 신고 이 운하를 통과하다 지난 7월 억류된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가 "파나마 운하와 파나마 국민에게 상당한 정도의 위험을 줬다"며 벌금 100만 달러(약 10억7천만 원)를 부과했다고 27일 보도함.
 - 호르헤 키사노 운하 관리인은 벌금이 이 북한 화물선의 선장과 선주들에게 통지됐으면서 이들이 최소한 벌금의 3분의 2인 약 65만 달러를 낼 때까지 억류에서 풀려나지 않게 돼 있다고 덧붙임.

- **北 학술지, 동남아 국가와 경제협력 주목(9/27, 연합뉴스; 경제연구)**
 - 북한의 학술 계간지 '경제연구' 2013년 2호에 실린 '아시아 나라들과의 대외 경제협조 관계의 특징'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 잠재력에 주목하고 이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함.
 - 논문은 아시아 국가들이 '제품 생산구조'가 다르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경제협조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뱃길로 연결돼 있다며 "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 나라들과 경제협조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으로 되고 있다"고 강조함.

- **北, 평양국제상품전람회서 외국기업 대상 투자설명회(9/27, 조선신보)**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7일 북한이 지난 23~26일 열린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첫날에 참가 외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평양 고려호텔에서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보도함.
 - 조선대외경제협력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투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외자유



치 담당 기구인 합영투자위원회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외국과의 합영합작을 통한 대외 경제협력 확대에 큰 관심이 있으며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홍보함.

- **몽골, 北에 밀가루 1천850t 인도적 지원(9/27, 몬짜메통신)**
 - 27일 몽골 몬짜메통신의 인터넷홈페이지는 몽골 정부는 북한에 인도적 차원으로 밀가루 1천850t을 전달했다고 밝힘.
 - 몽골이 지원한 밀가루는 북한 내 재해지역과 고아원, 병원, 학교 등에 분배됨.
- **올해 1~9월 대북 인도적 지원액 60% 급감(9/28, 미국의소리(VOA))**
 - 올해 들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60%나 줄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함.
 - VOA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을 인용해 올해 초부터 이달 27일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는 4천 572만 달러(약 500억 원)으로, 작년 1~9월 지원액(1억 1천 121만 달러)의 41%에 그쳤다고 소개함.
- **北, 월북자 사살 거둬 비난... "국제사회 심판해야"(9/28, 연합뉴스)**
 - 북한은 28일 우리 군 당국이 최근 임진강을 건너 월북을 시도하던 남성을 사살한 사건을 거둬 비난하며 국제사회의 '심판'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담화에서 "삶에 대한 의욕마저 다 잃고 절망에 빠졌던 그(월북 시도 남성)가 공화국 북반부를 동경해 의거 입북을 단행한 것은 달리는 할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이었다"며 그를 사살한 것은 남한 정부의 '반인륜성'과 '잔인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함.
 - 이어 "정의와 양심을 귀중히 여기는 세계 여러 나라 적십자 단체들과 국제기구들, 공정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괴뢰 패거리의 반인륜적 만행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단죄하며 범죄자들에 대한 심판에 적극 나설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 **北, 평양 주재 외교관 체육행사 첫 개최(9/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평양 능라인민체육공원에서 북한 주재 '외교단체육경기'가 진행됐다고 29일 보도함.
 - 행사에서는 중국대사관팀, 러시아대사관팀, 아시아국가대사관팀, 중동·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대사관팀, 유엔기구대표부팀, 유럽국가 대사관 및 협조사무소팀이 축구, 배구, 농구 등 3개 종목을 즐겼으며 박 의춘 외무상을 비롯한 북한 간부들과 각국 외교관 및 가족, 국제기구 대표들이 경기를 관람함.



■ 기타 (대외 일반)

- [중통사 논평] '美, 미사일요격실험 실시' 관련 '아·태지역에 대한 미사일방위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핵대국들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군사적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기도'라고 주장 및 '새로운 군비경쟁에 끌어들여 국력소모와 경제적 혼란 속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9.24, 중통)

나. 6자회담(북핵)

● 북한, 8월말 서해서 장거리로켓 엔진시험(9/23, 연합뉴스)

-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23일(현지시간) "지난 8월 25~30일 사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엔진 시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위성사진들을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함.
- 38노스는 닷새 간격을 두고 동창리 발사장을 촬영한 사진 두 장을 분석한 결과 "발사대 위 로켓의 동체로 보이는 물체 1기와 기증기가 등장했고, 추진제 탱크와 각종 모니터링 장비가 놓인 시험대 등도 포착됐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두 번째 사진에서 발사대 주변 초목 색이 불에 그슬린 듯 누렇게 변한 점 또한 이 기간 로켓 실험이 이뤄졌음을 뒷받침한다고 분석함.

● 北 통신 "美의 '北 미사일 위협' 주장은 신냉전 전략"(9/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하는 명분으로 북한의 위협을 드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판 냉전 전략의 산물로, 그 범죄적 성격을 가리기 위한 궤변"이라고 비난함.
- 통신은 '북조선 미사일 위협설은 신냉전 전략의 산물'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미사일 요격 시험 등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은 "핵 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군사적 패권을 유지강화하려는 기도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두 대국을 견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지배질서를 수립하고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 中외교부 "한반도 비핵화, 변치 않는 목표"(9/24, 연합뉴스)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노리고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조선반도 비핵화는 중국의 중요한 전략적 안보 관심사"라며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중국이 굳은 의지로 추구하는 변치 않는 목표"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함.
- 홍 대변인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련 문제의 해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3대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련국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성의를 보이는 가운데 합리적인 대화



를 통해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함.

- **北 리용호 독일 방문...6자회담 재개 시도(9/24, 연합뉴스; 니혼TV)**
 - 북한의 6자 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독일을 방문했다고 니혼TV가 24일 보도함.
 - 니혼TV는 리 부상이 북한을 담당하는 전문가와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내 한반도 소식통을 인용해 전하며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함.
- **핵실험금지기구, 北 등에 조약 서명 촉구 결의 예정(9/25,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가 이달 27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를 열어 북한 등에 조약 서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
 - CTBTO의 커스티 한센 대변인은 RFA에 이번 회의에서 북한을 비롯해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참여하지 않은 8개 국가에 서명을 촉구하는 결의문 13호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힘.
- **北 리용호-美 보즈워스 베를린 회동 성사(9/27, 미국의소리(VOA))**
 - 북한의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비공식 세미나가 지난 25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함.
 - 이번 세미나에는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 부상과 차석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부국장, 장일훈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 밥 칼린·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 등이 참석함.
- **베를린 북미 트랙2 세미나..."상호 입장 파악 주력"(9/27, 연합뉴스)**
 - 25~26일(현지시간) 이틀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북한의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한 트랙2(민관) 비공식 세미나에서 양측은 서로의 입장 파악에 주력했다고 미국 측 참석자가 밝혔다
 -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26일 베를린 시내 한 호텔에서 세미나가 종료된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북한이 대화에 긍정적으로 나서려고 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면서 "북한 역시 워싱턴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함.
 - 조엘 담당관은 그러나 6자 회담 재개에 관해 북한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에 관해서는 "북한이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것에 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밝힘.



- **北대표, 유엔 회의서 "전제조건 없는 핵협상" 요구(9/28, 평양방송)**
 -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68차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북한 대표가 전제조건 없는 한반도 비핵화 회담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평양방송이 28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장'은 지난 26일 비동맹그룹 주도로 열린 핵군축에 관한 유엔 고위급회의 연설에서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는 것은 우리의 변함 없는 입장"이라고 밝힘.

- **北, 유엔회의서 "한반도 평화·안정 위해 계속 노력"(9/29, 조선중앙방송)**
 -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68차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북한 대표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9일 전함.
 - 방송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장'은 지난 27일 '블러블가담운동'(비동맹운동) 상급회의(장관급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말함.
 - 그는 북한이 지난 6월 미국과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는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南 '대북 원칙론' 또 비난... "남북관계 파국 원인"(9/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북남관계 파국을 조장하는 반통일적인 원칙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한 정부의 원칙론이 본질적으로 '반공화국 대결정책'이라며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반통일적인 원칙론에 매달리며 동족대결의 길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역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남한 정부의 원칙론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변화를 견인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라며 "'대화 있는 대결' 속에서 어떻게 대화와 접촉, 내왕과 협력이 동족으로서의 정과 뜻을 나누는 화해와 단합의 장으로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함.

- **北 "남언론이 최고 존엄 모독" 연일 비난(9/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우리의 최고 존엄 위에 그 무엇도 있을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우익보수세력들이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비방 중상하는 엄청난 대결망동으로 민족화해의 길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함.
 - 통신은 "보수언론들과 어중이떠중이들이 나서서 함부로 우리의 최고 존



움을 걸고 '인민적 지도자의 의미 부각'이 어찌고저찌고 횡설수설하면서 지어 그 무슨 '처형'을 떠들며 하늘을 향해 주먹질하는 추태를 부렸다"고 비난함.

● 6·15북측위, 南 '원칙론' 비난... "공동선언 존중해야"(9/24, 조선중앙통신)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 위원회는 24일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남한 정부의 '동족대결책동'으로 남북관계에서 대결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반민족적이며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남조선 괴뢰당국과 어용보수언론이 '대화 있는 대결'에 매달리면서 '원칙론' 나발을 불어댈수록 남북관계는 더 엄중한 지경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북남관계 해결의 출발점은 북남 공동선언의 존중과 이행"이라고 밝힘.

● 北 신문 "南 보수언론 설치면 남북관계 결판"(9/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북남관계가 또다시 찬 서리를 맞게 된 것도 보수언론의 대결선동이 중요한 원인"이라며 "보수언론은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 재앙거리"라고 주장함.
- 신문은 "북남관계가 비정상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동족대결을 선동하는 보수언론의 망동을 단호히 끝장내야 한다"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보수언론의 입을 틀어막아야 한다"고 주장함.

● 南 '대북 원칙론' 비난... "일방적 흑백논리"(9/26,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6일 '흩어진 가족 상봉행사 연기, 북남관계 꼬이게 만든 대북 원칙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소통과 합의를 골중으로 간주하고 상대방의 변화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원칙론은 사실상 흑백을 가르는 승패의 논리, 민족문제 해결에 장애를 조성하는 대결의 논리"라고 주장함.
- 신문은 "(남한 정부는) 남측은 '정상'이고 북측은 '비정상'이라는 선악 개념을 북남관계에 적용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지난 6월 남북 당국회담이 수석대표의 '급' 논란으로 무산된 것도 이런 원칙론 때문이라고 주장함.

● 北 "南, 이산상봉 연기 책임 합리화" 비난(9/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인도주의자로 둔갑한 철면피한들'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보수 패당은 '이산가족 때려 금강산관광 얻으려는 성동격서니, '천륜을 끊는 행위'니 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한편 기만적인 '이산가족위문' 놀음까지 벌이며 교활하게 놀아대고 있다"고 주장함.
- 통신은 추석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연기한 것은 북한의 관계개선 노력이 대결에 악용되는 현실 때문이라며 "인도주의 문제를 비롯한 북남 사이의 화해, 협력사업의 판을 깬 것은 다름 아닌 남조선 괴뢰 패당"이라고 주장함.



- **北 조평통, 월북자 사살사건 비난(9/26,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6일 최근 우리 군 당국이 임진강을 통해 월북을 시도하던 40대 남성을 사살한 사건에 대해 "반인륜적 만행"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조평통은 "삶의 막바지에서 살길을 찾아 공화국 북반부로 들어오려는 무고한 주민을 무참히 학살한 괴뢰 패당이야말로 인두겁을 쓴 야만"이라며 "괴뢰당국은 반인륜적 만행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만행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함.

- **남북관계 위기는 南 태도 따른 필연적 산물(9/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북남관계의 현 위기는 필연이었다'라는 글에서 "북남관계가 대결과 긴장 격화로 뒷걸음치는 원인은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소동에 기승을 부린 괴뢰패당의 책동에 있다"고 밝힘.
 - 신문은 "(우리 정부의) '원칙론'은 '대화 있는 대결'을 '발전적인 남북관계'로 만들려는 반동적인 대결론"이라며 "북남관계의 현사태는 시작부터 남북대화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이를 파괴하기 위해 책동한 괴뢰패당의 (태도에 따른) 필연적 산물"이라고 지적함.

- **北, 류길재 장관 발언 비난... "남북관계 악화 부추겨"(9/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남북관계 악화를 부추기는 "오만불손하고 대결적인 망발"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사태의 본질을 오도하는 쓸개 빠진 망발'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류 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결본성'을 드러냈으며 "(남한 정부가) 북남관계의 현 위기를 타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악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준다"고 주장함.
 - 또한 류 장관이 이산가족 상봉은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남북관계를 대하는 '속물적 근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만약 우리가 민족의 운명 문제를 놓고 남조선 당국과 거래나 흥정을 하려 했다면 지금까지의 북남대화 와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도 없었다"고 말함.

- **北 조평통 "최고존엄·체제 비방자 징벌할 것" 위협(9/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9일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체제에 대한 모독이라며 "최고존엄과 체제를 비방중상하는 자들을 징벌할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밝힘.
 - 조평통 대변인은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이 서울에서 주최한 전문가 회의에서 북한의 불안정성 및 붕괴 가능성이 언급된 데 대해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비방중상하는 광대놀음을 벌였다"고 비난함.
 - 또한 "그 무슨 '붕괴론'으로 말하면 초보적인 판별력도 없는 얼빠진 자들의 나발"이라며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북한이 얼마 가지 못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다고 강조함.

나. 경제·사회·문화

● 개성공단 출입체류 분과위, '법률조력권' 합의 못해(9/26, 연합뉴스)

- 남북은 26일 개성공단에서 공동위원회 산하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북측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의 '법률조력권'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는 하지 못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함.
- 우리 당국자나 변호사 등이 입회하거나 접견하는 법률조력권과 관련, 남북은 서로 다른 법 체계에서 세부 사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태이며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위법행위 발생시 조사문제 같은 사안은 굉장히 법률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 협의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며 "한두 번 정도 회의를 더한다고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함.

● 남북, 개성공단 공동위 사무처 명단 교환(9/27, 연합뉴스)

- 남북은 27일 오후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30일부터 가동되는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사무처 인력의 명단을 교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우리측에서는 이주태(47)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부이사관)을 사무처장으로, 총 8명의 직원이 상주할 예정이며 북측에서는 사무처장을 맡은 윤승현(49)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협력부장과 4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됨.

■ 기타 (대남)

- 우리 정부의 '對北 원칙론'을 "교활한 대결정책,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근본요인"이라고 비난 지속 및 '원칙론에 계속 매달린다면 민족의 준엄한 심판' 주장(9.23, 중통·노동신문·중방)
- [중통 논평] 南 언론의 '리설주(*김정은 부인) 관련 보도' 등에 대해 "최고 존엄 모독행위"라고 再비난 및 "태양의 존엄은 그 무엇으로 써도 훼손시킬 수 없다"고 '김일성 일가 神聖·성역화' 강조(9.23, 중통)
- 통일부대변인의 對北성명(이산가족 상봉 연기에 대해 유감, 반인륜적 행위 등) 관련 '내외의 이목을 딛 데로 돌리고 반공화국 대결기도를 실현해 보려는 불순한 책동'이라며 '존엄과 자존심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는 대결망동에 대해 절대로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9.24, 중통·노동신문·중방·평방)
- "괴뢰패당이 '대화 있는 대결'을 추구한다는 것이 명백한 조건에서 우리(北)가 그것을 묵인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이것이 바로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하게 된 이유'라고 주장(9.25, 중통·중방·노동신문)



- [중통 논평(9.25)]우리 국방부 장관의 발언(4세대 전쟁기획, 전술적 대화공세 등)에 대해 '분별력마저 상실한 대결광의 도발망언'이라고 비난하며 '남북관계의 새로운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하루 빨리 제거 되어야 한다'고 주장(9.25,중통)
- 「범민련」 북측본부 대변인 성명(9.26), '南 괴뢰패당의 종북척결 소동'은 "대화상대방과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적대의식 발로"라며 '동족대결과 파쇼폭압소동 반대 및 남북 공동선언 이행투쟁' 선동(9.26,평방·중통)
- [중통 논평]南 보수패당이 이산가족 위문 놓음까지 벌리고 있다'며 이는 '이산가족 상봉 연기 책임을 합리화하기 위한 모략선전'이라고 '남한 책임' 전가(9.26,중통)
- 現 남북관계를 '南 당국의 대결정책과 군사적 도발책동(UFG 연습 등)'으로 지속 책임 전가 및 '反北대결에 계속 매달린다면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 위협(9.26,중통·노동신문)
- 우리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산가족 상봉은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병진노선 비판 등)에 대해 "오만불손하고 대결적인 망발"이라며 "남북관계의 現 위기를 타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악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9.28,중통·중방·노동신문/사태의 본질을 오도하는 쓸개 빠진 망발)
- 【중통 논평(9.28)】 탈북자 단체들의 '빠라 살포'(9.7, 경기 강화군) 관련 '미국과 南 보수패당이 인간 오작품들을 反공화국 대결소동에 내몰고 있다'며 "인간쓰레기들의 망동과 그를 배후조종하고 묵인하는 괴뢰패당의 죄행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9.28,중통)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위성사진 분석, 북한의 로켓 엔진시험 의심>(9/23, CNN)
 -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이 운영하는 북한전문 블로그 '38노스'는 북한의 미사일발사장에서 "지난 8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장거리로켓 엔진 성능시험이 진행된 것 같다"며 위성사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38노스는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북한이 서해 로켓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엔진 연소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발사장은 지난해 12월을 포함해 북한이 주요 로켓 발사장소 이용하고 있음.
 - 한편, 이 사이트는 이 장거리 로켓이 "은하 3호의 2단 추진체 가운데 하나이거나 새롭게 개발중인 로켓의 추진체"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미국 "북한, 핵무기 핵심부품 자체생산 가능">(9/24, WSJ)
 - 미국 워싱턴의 군축·비확산 전문가인 조슈아 폴락과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소속 핵과학자인 스캇 캠프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용 우라늄 처리에 필요한 부품을 자체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보고서는 북한은 이제 주요부품을 수입하지 않고도 무기급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가스 원심분리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유엔과 미국이 부과한 대북제재의 초점은 북한이 가스 원심분리기 관련 기술을 수입하지 못하게 막는데 급급했음.
 - 한편, 이들 핵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이 원심분리기 주요부품 6가지를 국내에서 생산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 논문과 언론 보도 내용을 검토한바 있음.

- <美 백악관 "북한 핵보유국으로 인정 안한다">(9/24, 연합뉴스)
 - 패트릭 벤트렐 NSC 부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기존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 벤트렐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온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 한편,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의 발언과 관련해 한



미 양국의 외교당국자들은 "로즈 부보좌관의 발언에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며 "기존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 <IAEA, '북한 핵 활동 중단 촉구' 결의 채택>(9/24, 연합뉴스)

- 지난 주말 폐막된 국제원자력기구 연차총회에서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 간 핵 안전협정 이행'에 관한 결의안이 미국과 한국, 일본 등 50여개국이 공동 발의해 연차총회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표결 없이 회원국들의 합의로 채택됐음.
- 결의는 북한이 진행 중인 모든 핵 활동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영변 핵시설에서의 5메가와트급 원자로 가동 재개와 우라늄 농축 활동, 경수로 건설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과 확장을 모두 중단할 것을 촉구했음.
- 결의는 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전면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조해 포괄적 핵 안전조치를 효과적으로 모두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 핵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돼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北핵무기 미사일로 운반하기에는 여전히 커'>(9/24, 연합뉴스)

- 리빈 중국 칭화대 교수는 25일 아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제1회 아산 북한회의'에 앞서 배포한 발언자료를 통해 "북한은 2~3차 핵실험에서 폭발력 높이려고 소형화 목표를 희생해야 했다"면서 "북한이 (스스로) 믿을 수 있는 핵무기의 크기는 미사일로 운반하기에는 여전히 크다"고 주장했다.
- 한편, 추수룡 중국 칭화대 교수는 "올봄의 위기는 북한이 지역 평화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진짜 위험을 보여준다"면서 "북한이 심각한 문제를 다시 만들 때를 대비해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는 군사적인 비상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미·북 관계

● <北 통신 "美의 '北 미사일 위협' 주장은 신냉전 전략">(9/24,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하는 명분으로 북한의 위협을 드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판 냉전 전략의 산물로, 그 범죄적 성격을 가리기 위한 궤변"이라고 비난했음.
- 통신은 이날 '북조선 미사일 위협설은 신냉전 전략의 산물'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미사일 요격 시험 등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은 "두 대국을 견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지배질서를 수립하고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미국 정부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다음달인 지난 3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 요격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北리용호-美보즈워스 독일 베를린서 회동할듯”>(9/25, 연합뉴스)
 - 24일(현지시간) 북수의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의 6자 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비공식 세미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자리에는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지낸 스티븐 보즈워스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 소장과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초빙 교수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 보즈워스 소장은 6자회담 수석대표로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1기 첫해인 2009년 12월 평양을 방문한 인사라는 점에서 그가 리 부상과 회동할 경우 의미있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다. 중·북 관계

- <中, 대북수출 금지 목록 공개>(9/23, 로이터)
 - 중국 상무부는 월요일,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대북 수출금지 품목과 기술목록을 발표하였다. 중국이 UN의 대북제재에 동의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의 최대 교역 파트너라는 점에서 그동안 유엔 차원의 제재조치 이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 모두 236쪽에 달하는 중국의 대북수출 금지 목록은 중국의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원자능기구가 작성한 것으로, 이는 핵과 생화학 무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들임.
 - 한편, 중국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이번에 발표된 수출금지 품목과 기술의 북한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이는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임을 강조하였다.

라. 일·북 관계

- <북한 총격 러시아 어선 입항...북러 외교 갈등>(9/24, KBS뉴스)
 - 러시아 선적의 700톤급 어선 '알타이'호가 지난 21일 새벽 1시 반쯤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해안경비대 소속 군함에 총격을 당했다. 알타이호는 15톤을 싣고 러시아를 출발해 동해항으로 오던 길이었음.
 - 이번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외교부는 북 측이 사전 경고나 절차 없이 총격을 가하고 수색까지 했다며 공식 해명을 요구하는 등 북러 간 외교 마찰로 번지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음. 한편, 북한은 지난 2천8년과 2천9년에도 자국의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선박을 억류한 적이 있음.



마. 기 타

- <北 나진항, 중러 개발경쟁...군사외교적 의도도>(9/24, 아사히신문)
 - 러시아 연해지역인 하산과 북한 북동부 나선특별시를 잇는 국제철도(54킬로미터)의 종착지인 나진항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경쟁을 벌이고 있음.
 - 나진항의 3개 부두 중, 제3부두는 북·러 합작회사가 개발하고 있음. 러시아 측은 아시아와 유럽을 러시아 경유로 연결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시베리아 철도와 직접 연결하는 북·러 국제철도와 나진항 개발을 중시하고 있음.
 - 한편, 중국정부는 나진항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1천 킬로미터 떨어진 다렌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진항 등을 무역거점으로 삼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음. 그러나 중국이 나진항을 군사거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핵실험금지지구, 北 등에 조약 서명 촉구 결의 예정">(9/25, 연합뉴스)
 - 유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가 이달 2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를 열어 북한 등에 조약 서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했음.
 - CTBTO의 커스티 한센 대변인은 RFA에 이번 회의에서 북한을 비롯해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참여하지 않은 8개 국가에 서명을 촉구하는 결의문 13호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한센 대변인은 현재 CTBTO와 연계된 관측소와 실험실이 전 세계적으로 200곳에 달해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해 지구 상의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파나마, "北선박 '청천강호'에 백만달러 벌금 부과">(9/27, 교도통신)
 - 중남미 파나마의 보도에 따르면 파나마가 나포한 북조선(북한) 화물선 '청천강호'에서 쿠바의 무기가 발견된 문제와 관련해 파나마 운하 당국은 26일, 신고 없이 운하를 통과하려고 했으며 선박회사와 선장 등에 대해 벌금 100만 달러(약 10억 7천만 원)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 당국은 처분 이유에 대해 "운하와 파나마 국민을 위협에 노출시켰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화물선은 여전히 파나마에 정박 중이며 선원들도 당국의 감시하에 있음.
 - 파나마 정부는 지난 7월, 쿠바에서 북조선으로 가던 화물선을 운하 입구 부근에서 나포했으나 적재된 짐인 설탕 아래에서 구 소련제 미사일과 군용기가 발견됐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30일 제8차 원자력협상…원전수출 부속서 논의>(9/23, 연합뉴스)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제8차 본 협상이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 지난 6월에 이어 3개월 만에 개최되는 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에서 박노벽 원자력 협력대사가, 미국 측에서는 토머스 켄트리맨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함.
 - 우리나라가 제시할 세부 조항에는 한국 원전의 국외 수출 시 원자력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미국이 보장해주는 방안과 우리나라 원전 수출과 관련된 미측의 핵심 설비 반출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한미 방위비협상 입장차 커…韓 "전작권과 연계안해">(9/27, 연합뉴스)

 -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 측과의 제4차 고위급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작권 재연기 문제를 연계하지는 않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 우리 정부는 특히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 등으로 전용돼온 것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제도적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다른 용처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미국 측은 지난 2004년 용산기지 이전계획(YP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합의 당시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 이전계획과 관련된 건설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양해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음.
 - 한편, 양측은 분담금 총액을 비롯해 주한미군이 쓰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미집행액과 이월액 관리 등 다른 쟁점들을 놓고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헤이글 미국방장관 주말 방한…전작권·북핵 논의>(9/27, 연합뉴스)

 - 조지 리틀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며, 방한기간동안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식과 내달 2일 열리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헤이글 장관은 특히 SCM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돼 결과가 주목됨. 양국 국방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임.



- <미국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길고 복잡할 것">(9/27, 연합뉴스)
 - 로즈 고테펠러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 지명자는 26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양국 동맹 관계 및 민간 핵 협력 등의 변수로 인해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그는 "이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과 그동안 민간 원자력발전 부문에서 협력했고 앞으로 민간 핵 협력의 잠재적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음.
 - 이어 고테펠러 지명자는 "의회가 협정 개정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을 검토하려는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는 우리가 더 길고, 더 복잡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음.

- <한·미 "북한이 핵개발 포기안하면 경제지원 어렵다">(9/27,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회담을 열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바라면서 동시에 핵개발을 해서는 안된다"며 기존 대북 입장을 재확인했음.
 - 이는 6자 회담의 재개에 앞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성의있고 가시적인 조치를 먼저 내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임.
 - 한편,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할 경우 서방 세계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였음.

나. 한·중 관계

- <"中, 방공식별구 확대 추진...한국 등과 중첩 우려">(9/26, 연합뉴스)
 - 대만 타블로이드 신문 왕보는 26일 캐나다에서 발행되는 군사전문 잡지 칸와디펜스리뷰를 인용, 중국이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변국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 이 잡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계획이 현실화되면 서해와 동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의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될 수 있다고 지적했음.
 -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동중국해를 비롯한 주변 해역과 공역에 대한 장악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캐나다 매체는 해석했음.

- <한·중, '日 과거사 문제에 강력 대처' 의견 모은 듯>(9/27,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7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회담을 열어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 양국 외교장관은 이외에도 대(對) 일본관계, 북한 핵 문제, 시리아 결의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으며, 이날 회담은 예정된 시간을 넘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어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양상과 대조를 이루었음.
- 다만 양국은 파나마에서 억류된 북한의 청천강호에 대한 유엔차원의 추가 제재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음. 우리 측은 북한의 핵개발과 청천강호의 무기운반은 명백한 유엔결의 위반으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중국 측은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임.

다. 한·일 관계

● <日경찰, 야스쿠니신사 무단침입 한국인 체포>(9/23, 연합뉴스)

- 일본 경찰이 도쿄 야스쿠니 신사를 무단 침입한 혐의로 한국인 남성 강모(23)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동기 등을 조사중임.
- 23일 도쿄 경시청에 따르면 강씨는 22일 저녁 톨루엔으로 보이는 액체가 들어있는 페트병과 라이터를 소지하고 도쿄 지요다구의 야스쿠니 신사 경내에 무단으로 들어가 있다가 순찰중인 신사 경비원에게 발각돼 경찰에 넘겨졌음.
- 한편, 일본 경시청은 강씨가 방화 목적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중임.

● <윤병세 장관, 日외무상에 '과거사 치유 리더십' 촉구>(9/27,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음.
- 윤병세 장관은 회담이 시작되자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가 과거문제를 치유하려는 용기있는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강조했다"고 인사말을 건넸으나 기시다 외무상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
- 기시다 외무상은 다만 "한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일본은 하계올림픽을 각각 성공적으로 치르기를 희망한다"고만 말했음.

라. 미·중 관계

● <“미·중, 북한 붕괴 대비 책임구역 미리 정해야”>(9/23, 연합뉴스)

- 러시아 관영 일간 '로시이스카야 가제타'는 22일(현지시간) 인터넷판에서 최근 발표된 미국 랜드연구소의 '북한 붕괴 가능성 대비 방안' 제하 보고서에 미국과 중국이 북한 붕괴 사태 시 파견할 양국 군 충돌을 막기 위해 사전에 미리 책임 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급사나



내전 등으로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경우 북한 내부의 대혼란은 물론 이웃 국가인 중국과 남한 등도 수십만 명의 난민 유입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음.

- 한편,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이 우선 책임 구역을 설정한 뒤에야 북한 위기 사태 극복을 위한 협력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군, 日에 미사일방어체제 구축...中 "지역평화에 불리">(9/24, 인민망)

- 중국 외교부는 23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홍레이 대변인을 통해 미군이 일본 교토에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일본 측이 승인한 것과 관련해 중국은 관련 보도를 들은 바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음.
- 홍대변인은 "중국은 조선핵 방지와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국가나 조직이 일방적으로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거나 집단협력을 펼치는 것은 지역 확산 금지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리하다고 밝혔음.

● <中, 미국에 '홍콩 문제 개입말라' 재차 경고>(9/26, 연합뉴스)

- 26일 홍콩 언론에 따르면 중국이 클리포드 하트 홍콩주재 미국총영사의 홍콩 문제 발언에 대해 "무책임한 언급을 삼가라"면서 또다시 불쾌감을 나타냈음.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치 발전은 홍콩 내부의 문제이고 중국의 내부 정치 문제인 만큼 어떤 나라도 무책임한 언급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관련국들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음.
- 한편, 하트 총영사는 지난 24일 미국상공회의소 주최 오찬 연설에서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와 관련, 미국은 홍콩에서 진정한 보통선거가 시행되는 것을 지지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진정한 보통선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찬반의 입장이 없다고 밝힌바 있음.

● <미·중 외교회담서 '대북 고강도 제재' 유지 합의>(9/27,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9일 워싱턴 회동에 이어 26일 제68차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다시 회동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고강도 제재를 유지한다는데 합의했음.
- 두 장관은 비핵화 이외에는 북핵문제 해결의 대안이 없다는 공통인식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음.
- 특히, 케리 장관은 중국이 최근 대북 수출통제품목 리스트를 발표한 것을 중요한 제재조치라고 평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다른 제재조치들에 대해서도 왕 부장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당국자들이 밝혔음.



마. 미·일 관계

- <일본외교관, 미국의회서 센카쿠 전담 로비 '약발'>(9/23, 한국일보)
 -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중국어명: 다오위다오) 열도 문제를 로비하기 위해 별도의 외교관을 미국에 파견해 운용한 사실이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최근호에서 밝혀졌음.
 - 일본의 '섬 로비'는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지난달 21일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도쿄에서 "센카쿠가 일본 영토라는 게 미국 의회와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제3국의 영토 갈등에서 한쪽 편을 들지 않는다는 미국 입장과 다른 수위 높은 발언이었음.
 - 중국은 섬 로비스트 기사에 대응하지 않고 있으나 이 기사에 당사자인 일본이 중국보다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미·일, 사이버방위 정례협의 신설"...공동대처 강화>(9/24, 연합뉴스)
 - 미·일 양국 정부는 국방 당국자(차관급)간 정례 '사이버 방위 협의'를 신설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24일 보도했음.
 - 중국,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안보 분야 협력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이버 공격과 관련한 정보 공유·대응 훈련 외에 전문가 육성, 민간기업과의 공조·협력 강화 등을 모색함.
 - 10월 초 도쿄에서 열리는 외무·국방장관간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의때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오노데라 이쓰노리일본 방위상이 합의할 예정임.

- <미국 상원의원 60명, TPP 협상 환율 연계 요구>(9/25, 연합뉴스)
 - 미국 상원의 민주당 의원 60명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환율 조작' 문제를 포함하도록 백악관을 압박해 귀추가 주목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 보도했음.
 - 이들 의원은 마이크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환율 조작이 자유 무역 효과를 무력화시키거나 혜택을 크게 줄인다"면서 이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치명적 충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편지는 환율 문제를 TPP는 물론 앞으로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도 포함하라고 요구했음. 한편, FT는 편지에 일본이 거명되지는 않았으나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에 대한 미국 의회와 특히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계의 불만이 고조돼온 점을 지적했음.

바. 중·일 관계

- <중국 왕이, 센카쿠 주권분쟁 인정해야 일본과 대화>(9/23, 연합뉴스)
 -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일본이 센카쿠(중국어명: 다오위다오)의 주권분쟁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일본과 대화할 수 있다며 일본의 태도변화를 촉구했음.



- 왕이 부장은 지난 20일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 강연을 통해 중국은 센카쿠 문제에 대해 일본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일본이 대화에 앞서 분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화망이 23일 보도했음.
- 한편, 일본은 중국이 1단계로 센카쿠를 분쟁지역화한 후 공동관리 등을 추진하면서 주권주장을 강화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의 움직임에 경계하고 있음.

사. 일·러 관계

- <러. "일본 정치인들 쿠릴열도 방문 제한할 수도">(9/26, 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는 26일 발표한 외무부 공보실 명의의 논평을 통해 러시아가 지금까지 허용해온 일본 정치인들의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방문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음.
 - 러시아 외무부는 "쿠릴열도 방문에 이어 나온 정치적 성명, 특히 러-일 양국 간 평화조약 체결 문제 등의 민감한 사안에 대한 발언은 적절치 못하며 영토 문제 협상을 차분한 분위기에서 추진키로 한 양국 정상 간 합의와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 쿠릴열도 문제는 러시아-일본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음. 양국은 홋카이도 서북쪽의 쿠릴열도 가운데 이투롭(일본명 에토로후), 쿠나시르(구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 등 남부 4개 섬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분쟁을 겪고 있음.

아. 기 타

- <미국에 간 아베 "날 군국주의자라 부르려면 부르라">(9/26, 연합뉴스)
 -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이 주된 역할을 맡고 있는 지역 및 세계 안보 틀에서 일본이 '약한 고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을 역설했음.
 -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뉴욕에서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행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목표에 대해 "세계평화와 안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음.
 - 한편, 아베 총리는 중국의 군비증강 내용을 언급하면서, "나를 '우익 군국주의자'라고 부르고 싶다면 부디 그렇게 불러달라"고 역설 논법으로 일본의 우경화와 군비증강에 대한 우려에 대해 항변했음.
- <日 '지역 제한없는 집단자위권 행사' 입장 정리>(9/27,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와 관련, '지역적 한계를 두지 않는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음.
 -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 하더라도 지구 반대편에서 자위대가 행동을 벌이는 것은 아니다'는 자



신의 기존 발언을 사실상 철회했음.

- 결국, 아베 내각이 일본의 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되면 지역에 관계없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향후 본격적인 논의과정에서 일본 평화헌법에 담긴 '전수방위' 원칙과의 충돌 문제가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